

# 서남대 의대 특별편입학 갈등 '일단락'

### 전북대 - 학생 간 소통, 학습권 피해 최소화 방안 의견 일치... 원만한 매듭지어

서남대 의대생의 전북대 의대 특별편입학 문제가 대학 측과 학생·학부모들 간의 소통으로 원만하게 매듭지어지게 됐다.

전북대는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학 측과 의대·의정원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월 24일 오후 열린 대학본부 및 의과대학과 의대 학생대표 간 간담회에서는 성적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최종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

후 서남대 의대 특별편입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들은 성적처리 방법 문제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시설 확충, 장학금 확충 등이다.

전북대학교 측은 기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강의실 확충과 리모델링, 실험실 습실과 컴퓨터실 및 도서관 열람실 등을 확충하고 장학금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학 측과 학생들은 이번 편입학 이후 이어질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증원과 관련해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지역 의대에 영구적으로 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민근기자

# 도교육청 올해 특수교육 정책방향 나왔다

###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설정, 공정한 기회 보장 지원 강화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 정책 방향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설정하고,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2018년 전북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특수교육법의 학급당 법정 정원(유 4명, 초·중 6명, 고 7명) 준수와 특수교원 증원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유·초·중·고에 특수학급 19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교에도 15학급을 증설하는 등 2017학년도에 비해 44학급이 증가했다.

다. 찾아가는 장애인 예술가 초청 순회 교육, 장애체험학습,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작은음악회 등 장애이해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감각장애거점센터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진로직업교육은 더욱 내실있게 진행한다.

장애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드림 직업실습을 진행하고, 특수학교기업 1교·직업교육 중점학교 2교·직업교육 거점학교 1교를 각각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성과평가에서 매우우수 단계인 89%를 뛰어넘는 91.6%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287교에 출입구(문),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승강기 지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강화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및 통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치료지원비의 경우 전자카드제 도입을 검토해 수요자 중심의 치료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6일 오후 완주군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북 특수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도내 특수교육 담당교원과 전문직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발전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1·2부로 나뉘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7시까지 이어진다.

1부에서는 1시간 동안 제5차 5개년 전북특수교육 발전계획과 2018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설명한다.

이어 2부에서는 선택식 특강 및 토론이 진행된다. 장애영유아 통합학급 우수사례, 발달장애 마음읽기, 긍정적 행동지원, 진로직업, 마을공동체와 특수교육, 장애인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등 모두 7개의 연수과정이 마련됐으며, 오후 5시부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자유 열린 토론이 이어진다.

/김민근 기자



**원숭이가 한파를 이기는 방법**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된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원숭이가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온천욕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시동

### 전북도교육청, 관련 예산 확보 본격 지원 나서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교과로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 초·중·고교원 원격 및 집합연수 운영, 선도학교 운영, 수업연구회, 학생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 20억7100만원(2017년 15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89개교), 수업연구회(4팀), 학생동아리(16팀) 운영과 학교관

리자, 선도교원, 초·중등교원 및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피지컬컴퓨팅 실습 지원(중등 85교), 학습기반 구축 운영학교 지원(40교),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SW교육 교구구입 지원(285교), SW교육 체험활동 및 홍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날(10월10일) 운영, 체험행사, 탐구대회, 페스티벌, 온라인코딩파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중학교 34시간 이상, 2019년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교과로 편성됨에 따라 전북 교육청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를 '알고리즘(단계적 사고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을 생활과 소프트웨어 영역,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 컴퓨팅과 문제해결 영역으로 나누어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체험과 탐구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이수 기간 및 시간

을 편성토록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을 신장하고, 컴퓨터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언플러그드 활동 등)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며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은 교실수업을 통해서 학생 상호간 협력과 토의과정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별도의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내 수업만 들어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 군산대, 3월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군산대학교는 3월부터 청소원, 시설물관리원 등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30명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월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군산대학교는 2017년 10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용역근로자 전환 협의절차를 개시·공고하는 한편 전환 직종 대상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올해 1월에는 군산대학교 정규직 전환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

성하여 2차례에 걸친 회의도 했다. 이를 통해 군산대학교와 근로자 대표단은 정규직 전환대상 및 시기, 전환방식 및 임금체계, 채용방법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에 합의했고, 24일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청소 및 시설물관리 등 2개 분야 용역근로자들은 3월 1일자로 대학회계적인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군산대 심민철 사무국장은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이 안정되어 질 것으로 본다"면서 "군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광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순위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승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백의 구호활동 4,679,359,901
04	안전 지식보급 5,733,677,999
...	...
66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

홍보대사 류수영